**한미 동맹과 한중 동맹론**

**김한권(金漢權)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60년 넘게 유지해온 한국이 과연 중국과도 동맹 또는 동맹은 아니지만 정치와 군사/안보상의 관계를 동맹관계에 준하게 강화할 수 있느냐가 최근 몇몇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옌쉐통(閻學通) 칭화대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과 왕이웨이(王義桅)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 소장 등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옌쉐통은 최근 그의 저서 “历史的惯性”과 학술회의 발표를 통하여 중국은 비동맹의 원칙을 버리는 한편, 일본의 안보위협, 북한 핵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한중공동의 3가지 안보이익으로 주장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한미동맹의 존재를 지적하며 한중동맹 체결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보여주었던 '兩端외교 (double alliance)'를 가리키며 한국이 미국과중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까지의 고려-북송-거란의 시기와 17세기 전반기의 조선-명-후금과의 관계를 역사적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옌쉐통의 주장 중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만약 미중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중립을 지킬 수 있고 만약 한국인들이 ‘동맹’이란 용어에 거부감을 표한다면 ‘운명 공동체’란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다.

왕이웨이 역시 한국이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일이 서로 모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이 지난 시기 장기간 동안 독립과 자주의 비동맹 외교정책을 유지해오며 지금까지 약 칠십에서 팔십 개 국가들과의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주변의 전략적 주요국들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통한 새로운 주변외교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ASEAN 국가들, 서쪽의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끝으로 동쪽의 한국과는 ‘중한선린우호협력조약 (中韩睦邻友好合作条约’의 체결을 제시하고 있다. 왕이웨이는 또한 한국과의 선린우호협력조약에는 핵포기, 안보, 그리고 통일의 3가지를 기본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중 양국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고 동시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면, 이는 동맹은 아니라도 정치·안보상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 문제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왕이웨이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시각들은 몇 가지 부분에서 논쟁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군사/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의 범주로 명확히 나누어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의 이익 충돌 시 중립의 위치를 지키기 보다는 선택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타결된다면, 이는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한중 경제관계뿐 아니라 한미간의 TPP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계 설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둘째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자체적으로의 함유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북아 유일의 전략적 상대국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이와 함께 미중간의 경쟁과 견제에 기인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이는 왕이웨이가 주장한 중국의 주변 주요 4국과의 관계 강화와도 깊이 연결되어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미·일 지역안보협력구조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대북관계에서 한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연계에 금을 내려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방한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방문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동맹을 동요시키고 중국 중심의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았다.

즉, 한미동맹과 동맹에 준하는 한중관계의 양립시도는 결국 한국의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응하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참여 논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한국의 협력 또는 상호 운용성 강화 논의 등은 한중FTA와 더불어 경제와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한국이 미·중사이에서 전략적 중립의 위치를 유지하기보다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한중간의 인식격차이다. 미중간의 관계가 경쟁과 견제의 구조에서 협력우호의 구조로 바뀐다면 한미동맹과 한중간에 ‘운명 공동체’ 또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경체 체제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미국과 나누고 있는 한국과 왕이웨이가 주장하듯이 중화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계산에 기반을 둔 일시적 협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운명 공동체’ 또는 선린우호협력관계가 장기간 유지될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앞으로도 조화롭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현재까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요인과 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구도를 고려한다면 한중간의 관계발전이 군사적 함의를 포함한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